



YG WINNER 뷁니 @YG_WINNER-01
[PHOTO] YG WINNER for Ceci Korea Magazine November 2017 Issue 뷁니
@kimjinyoung / @jinyoung01 / @moxie_01

착륙과 함께 몸을 감싸는 열기, 수만나뭇 국제공항의 발광한 활주로와 면세품점 가격 대비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근사한 호텔과 식사, 세상의 온갖 브랜드를 만날 수 있는 쾌적한 쇼핑을 떠난 시간이면 뚝뚝과 푹푹씩 초록색 택시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각지에서 모여든 여행자로 북비는 야시장과 카오산 로드의 풍경이 있는 도시, 요컨대 방콕은 대도시로 내 기억에 남는다. 물론 이젠 방콕의 강 건너를 마주하기 전 이야기다. 방콕을 너무 도시 여행자답게 타고든 탓일까? 어느덧 세 번째 방콕 여행이지만 그동안 방콕에서 강의 인상은 희미했다. 하지만 방콕에는 거대한 차오프라야강(Chao Phraya River)이 흐른다! 도시의 강이 정비되면서 많은 운하가 사라졌지만, 현재 이 도시에는 크고 작은 수천 개의 운하가 존재했고, 차오프라야강의 물줄기를 따라 뻗어 나간 미로 같은 수로는 방콕 사람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그 풍경과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강을 달리는 낡은 모터보트, 선착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과 현지 사람들이 게으릿둥인 생활방식은 식당, 그리고 방콕 도심과 강 건너편을 잇는 수많은 배까지. 그러니 방콕을 새로운 방식으로 여행하고 싶다면, 다음 키워드를 기억하면 된다. '리버사이드(Riverside)'!



차오프라야강 인근의 활력로운풍경을 그 동안 기억하던 날주하고 번잡한 방콕의 인상은 단번에 지워진다.



- 1 방콕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는 길거리 음식
- 2 순화근처에 자리한 사원 인물의 거대한 불에 불을 쬐는 불탑 모습
- 3 야시장 리버사이드 양쪽과 야시장의 새벽 풍경은 워낙서들
- 4 강 건너편으로 인사를 할 수 있다
- 5 시골 리버사이드에서 가장 유명한 생활인인 리버사이드 양쪽의 풍경
- 6 한 쪽은 리버사이드에서 열리는 전시, 다양한 아티스트의 작품 문헌 날 수 있다.



재발견, 고요한 방콕

BANG



KOK

방콕은 조용하다는 표현과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도시다. 하지만 도심 반대편 리버사이드에서 방콕을 바라본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방콕의 옛 도심과 현대 도시를 나누는 차오프라야강을 기점으로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1



3

- 1 방콕도에서 잠시 휴먼어티스트 엘리 베리쿠의 사랑스러운 작품
- 2 리버사이드 지역의 골목길 자판거로 둘러보는 여행자를 3 오후 7시가 리버사이드 아바니 리버사이드 방콕에서 바라본 풍경 4 신채양의 오래된 찜고물 육으로 개조해 탄생한 정복국의 한낮의 여유를 가리키었다 5 음악과 문예 그리고 대학가촌은 방콕의 밤



2



리버사이드 지역에서는 사계절 푸른 방콕의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방콕을 여행하는 새로운 키워드

이처럼 느긋하게 흘러가는 방콕의 새로운 면모를 엿보고 싶다면? 지난 가을 문을 연 아바니 리버사이드 방콕(AVANI Riverside Bangkok)은 호기심과 또렷한 취향을 겸비한 여행자를 위한 완벽한 여행의 기점이 되어줄 만한 곳이다. 리버사이드의 한적한 공기와 방콕의 모던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소이기 때문. 아바니 리버사이드에 묵는 동안 가장 자주 만나게 되는 곳은 아마도 11층에 자리한 로비층일 거다. 크고 넓은 통창 기둥들이 들어오는 아름다운 차오프라야강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호사는 다행히 호텔 객실에서도 누릴 수 있다. 창 너머 평화로운 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눈을 뜬 후 가장 먼저 할 일은 로비층에 자리한 레스토랑 스카이라인에서 햇살을 맞으며 아침 식사를 맛보거나, 사람들이 붐비기 전의 아침 수영장으로 향하는 것. 그 풍경의 끝에는 역시나 강이 이어진다. 단순히 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장엄이나마 뛰어 들고 싶다면 완벽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The Kong Guru Tour'를 신청하는 것. 태국어로 '운하를 의미하는 단어 'Klong'이 포함된 이 투어는, 이름 그대로 운하 근방의 로컬 지역을 신중하며 선뜻 찾기 어려운 오래된 맛집에서 갖가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운하를 마스터한 '구루'는 누구일까? 바로 15년 넘게 호텔업계에서 일해온 천자인 미스터 다이아몬드.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는 그는 꽤 수다쟁이로, 그와 함께라면 태국어를 못하는 여행자가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아주 오래된 향고 스타리 크라이스 맛집이나 팻타이 맛집, 그리고 골목골목을 능수능란하게 탐험할 수 있다. 보통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투어는 2인 이상 신청 가능하며, 가격은 1인 기준 2천 바트(약 6만 5천 원)지만, 네 시간가량 이어지는 투어에 소요되는 모든 교통 비용과 식비, 팁이 포함된 금액이니 방콕의 로컬 분위기를 탐험할 준비가 된 도전자에게 권하고 싶다. 허름한 식당에 앉아 먹은 단호박 커스터드 푸딩과 실린과 프림투성이로 어무리 '달 달개'를 의처도 달았던 태국 길거리 커피의 맛은 잊지 못할 거다.

TRAVEL TIP!

방콕의 진짜 이름, '크룽탑'
태국 사람들은 방콕을 '방콕'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1781년 리마 1세가 수도를 강 건너로 옮기기로 결정한 이후 도시는 긴 문장과 수세이로 된 아주 길고 생스러운 이름을 받게 됐는데, 그 긴 문장의 일부만 차용해 태국 사람들이 부르는 명칭은 바로 '크룽탑(Krung Thep)'. 천사들의 도시(City of Angels)라는 뜻이다. 이 또한 한자적인 미스터 다이아몬드의 덕에 알게 된 사실. 길바닥을 일곱으로 맞이하며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차오프라야강을 건널 때, 주민들의 집과 구멍가게가 전부인 고요하고 잠잠한 운하 주변의 밤거리를 걸을 때, 신채양 근처의 시장과 골목을 걸을 때, 이전에는 몰랐던 방콕의 낯설고 사랑스러운 풍경을 바라보며 역시나 낯선 길, '크룽탑을 향해 일몰이 몇 번이고 되뇌었다. 분주한 여행자들의 '방콕이 아닌 그곳' 크룽탑을 보고 싶다면 가예두길 방콕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이 되었을 키워드, '리버사이드'를.

6.4.11 NOVEMBER 2017

리버사이드에서 가장 모던한 호텔 아바니 리버사이드 방콕의 휴먼 에디를 만나 차오 프라야강이 있다.



- 1, 2 아바니 리버사이드 방콕의 가장 큰 매력은 호텔의 정원에서 찾을 수 있다. 26층 옥상가운데 자리한 푸르플라 에티튜드와 인피니티 풀 3층형의 모든 층은 강을 향해 나 있다. 11층부터의 휴먼 에디 방콕의 야경을 감상하실 4 어두운 휴먼 가람 휴먼 에디 방콕 야경의 향이 유바라하는 방콕 도시를 고요하고 평화롭게 그려냈었다.
- 5 차오 프라야강을 바라보며 휴식을 즐길 수도 있다.



AVANI RIVERSIDE BANGKOK

완벽한 방콕의 밤

항상 완벽한 숙소를 찾아 헤매는 여행자들. 그들이 아바니 리버사이드 방콕에서 묵기로 결정했다면, 모던한 물리도 호텔 옥대기 층에 자리한 인피니티 풀의 존재가 영향을 미쳤을 거다. 여유롭게 흐르는 차오 프라야강을 마주한 인피니티 풀은 정갈 수영을 즐기며 몸을 만끽할 수 있는 수심과 넓은 폭을 자랑하니까. 역시나 같은 옥대기 층인 26층에 자리한 바, 에티튜드도 이 호텔의 매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이 푸르플라의 가장 근사한 점은 차오 프라야강 너머 방콕 도시를 조망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을 그곳에서 조망할 수 있어요." 아바니 리버사이드 방콕을 기획 단계부터 함께한 엘리자베스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근거 없는 자부심은 아니다. 실제로 에티튜드는 오픈 이후 푸르플라 바 건축이 벌어지는 방콕을 대표하는 푸르플라의 정수로 주목 받았었으니깐. 《에티튜드의 트립 어드바이저 평점은 무려 4.5점에 달한다!》 물론 반박하는 강 너머 풍경을 그곳이 바라보며 탁 트인 한 잔을 즐기고 있는 라운이 푸르플라 바를 향한 평가나 비평은 아무 상관없이 느껴진다.

에티튜드의 매력을 좀 더 설명하자면 실내의 공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인피니티 풀 주변을 둘러싼 선베드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테이블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실외 공간이 탁 트인 경치를 바라보며 여잔 친구들과 왁자지껄 파티를 즐기기에 좋다. 어두운 조명과 붉은빛의 색채는 분위기로 꾸며진 내부 공간은 연인과 내밀한 시간을 보내기에 더없이 완벽하다고 할까. 프랑스 출신 미술로지스트가 선보이는 창조적인 각태일부터 호주 출신 젊은 세프가 선보이는 다국적 느낌이 섞인 요리도 기다리고 있다. 또 하나 즐거운 사실은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를 적극 권장하는 덕분에 나눠 먹기 좋은 음식들이 매뉴 리스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모던한 해외의 푸르플라 바에서 각자 음식을 먹어 먹기 좋은 알집사가 자연스레 놓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꽤 기분 좋은 일이다. 특히 슬러시와 밀고의 문어, 아보카도를 소스에 곁들인 에피타이저 메뉴를 잊지 말고 맛봐야 한다.

모던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차오 프라야강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아바니 리버사이드 방콕은 2016년 문을 열었다. 총 2백48개의 객실은 모두 리버풀로 호텔 최상층인 26층에 자리한 인피니티 풀과 푸르플라 에티튜드가 특히 매력적이다. 방콕 도심과 떨어진 강 건너편에 자리해 있지만 20분마다 서퍽 보트를 운영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미터 택시가 상시 대기 중이다. 11층 로비층에는 레스토랑 스카이라인과 델리 루아 스낵을 즐길 수 있는 더 캔트리가 자리해 있으며, 차에 호텔인 아나타 리조트의 바와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 호텔 옆에 자리한 복합 쇼핑몰 리버사이드 몰라자에 세븐 일레븐 편의점과 드림스투어 부츠를 비롯 레스토랑과 보복스 브라더스, 힐스엔키스 등 브랜드 아웃렛 매장이 입점해 있어 쇼핑도 편리하다. 주소: 257 Charoen Nakhon Rd, Khwaeng Samsen, Khet Than Bur, Bangkok. 문의: +66 2459 9100. www.mnorchotel.com/avani/riverside-bangkok

6 OCT NOVEMBER 2017



리버사이드에 놀러 오세요
차오프라야강 인근에 자리한 보물 같은 장소들



ANY ROOM



NEVER ENDING SUMMER

JAM FACTORY

차오프라야강변의 작은 선착장 시 프라이어(Phraya Pier)에 자리한 넓은 공장과 창고 자리를 이용하여 만든 '잼 팩토리'는 태국의 건축사무소가 기획한 복합 공간이다. 2015년 문을 연 사무소와 갤러리를 필두로 차츰 술과 레스토랑이 들어선 이 구역은 지금 방콕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다. 좋은 취향의 디자인 가구의 집회를 판매하는 에니온 책과 워트 있는 자체 제작 상품 그리고 맛있는 녹차 파이를 맛볼 수 있는 북카페, 그리고 태국 요리를 현대식으로 풀어낸 레스토랑, 더 네버 엔딩 서머까지 어름은 끝나지 않는다는 낭만적인 이름처럼, 감지막한 청춘 가득 푸르른 방콕의 나무들이 보이는 레스토랑은 제일 허브를 품격 사용함 메뉴로도 유명하다.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선착장 바로 옆에 두 번째 가게를 언덕에 야외에서 한층 근사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재래시장도 가깝다.
주소: 41/1-5 Charoen Nakhon Rd, Khlong San Bangkok
문의: +66 2 861 09509 #TheJamFactoryBangkok



CANDIDE BOOK & CAFE



ASIATIQUE THE RIVERFRONT



파퓰러 아시아의 방대함과 소란함에 지쳤다면 쾌적하게 쇼핑과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아시아티크 리버프론트를 찾길 것. 7백 년도 더 된 재래소가 있던 공간은 크고 작은 술로 활기찼고, 300미터에 달하는 강변에는 분위기 좋은 펍과 레스토랑이 가득하다. 하이라이트는 42개의 곤돌라가 있는 대관람차. 아시아티크로 향하는 서플 보트를 운영하는 호텔에 투숙한다면 식사 후 저녁 나들이 장소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것. 매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문을 연다.
주소: 2174 Charoen Krung Rd, Khwaeng Wat Phraya Krai, Khet Bang Kho Laem Bangkok
문의: +66 2 1084488 www.asiatiquethailand.com



INFINITY SPA

차오프라야강변과 가까운 글롱 산(Khlong San)역 인근에 자리한 인피니티 스파. 민트 커피와 화이트 커피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공간에서 스파와 네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디 스크럽과 마사지 그리고 프랑스의 스파 브랜드 밀고의 제품을 이용한 페이스 마사지로 구성된 3시간 패키지는 3천1백 바트(약 10만6천원)로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장담한다.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에도 선정된 '잇 미(Eat Me)'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다.
주소: 1037/1-2 Silom Rd, Khwaeng Silom, Khet Bang Rak Bangkok
문의: +66 2 257 8588 www.infinityspa.com

6.6 NOVEMBER 2017